

구례군 의원들 입법 활동 ‘수동적’

30년 간 의원 발의 조례 제정 57건·개정 88건 불교 집행부는 1174건...전문 인력 진출 제도 마련해야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의 의원 발의에 의한 입법 활동(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 11%에 그치고 있어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보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구례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의 제·개정은 총 1319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의원 발의에 의한 것은 145건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부에 의한 것은 1174건으로 90%에 가까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집행부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수있는 조례 제정의 경우 의회가 만들어지 이후 30년간 의원 발의는 57건이었으나 집행부의 요구에 의한 것은 다섯 배나

많은 266건에 달해 의회의 역할을 무색하게 했다.

조례의 개정도 집행부 요구가 908건이었으나 의원 발의는 10%에도 못미치는 88건으로 집행부의 발의가 열 배를 넘어 조례 개정 역시 집행부의 의중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의 조례 제정은 8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1998년부터 4년동안은 집행부가 26건이나 제정을 요구했으나 의원 발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현 의원들의 임기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24건의 조례 제정과 22건의 개정이 의원 발의로 이뤄져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역대 의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전직 공무원인 A(75)씨는 “입법 활동을 보면 그 의회의 척도를 알수 있다”며 “보다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할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B(65)씨 역시 “아직도 많은 조례와 규칙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세밀한 의정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느때 보다 활기찬 입법 활동을 펴고 있다”며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 연수와 교육을 통해 입법 능력을 꾸준히 키워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이 현재는 2명 뿐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3까지 3명의 정책지원관이 더 배치될 것으로 보여 보다 나은 의정 활동이 기대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흥군이 아이키우기는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행복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체험학습에 나선 유치원 원아들이 텀박질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아이 키우기 좋은 고흥 ‘젠걸음’

군, 129억 들여 도양읍 아이행복센터 조성 등

고흥군이 인구 감소를 막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365 행복한 고흥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엔 ‘젠걸음’을 걸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작년보다 15억여 원이 늘어난 129억 4000여만 원을 보육예산으로 편성해 한층 더 안전하고 촉촉한 보육정책을 펼친다.

2022년도 신규 보육시설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39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방역 소독비 2340만원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 개보수 2개소 60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5개소 취사 종사자 인건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만3~5세 누리과정 원아 현장 학습비 1인당 4만원 지원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한다.

2022년 7월 개관을 목표로 도양읍 봉암리 하나로마트 인근 군유지에 출산·양육 환경조성 육

아통합거점센터인 ‘고흥군 아이 행복센터’를 조성·건립하고 있다.

센터 주요시설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요리체험실, 상담실, 모자 휴게실을 구성·배치해 자녀들에게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에게는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육아 정보나눔, 육아 토크 등 센터를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공기질 검사 수수료 ▲놀이터 안전 검사비 ▲냉·난방비 ▲아동 간식비 등 지원으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돕는다. /고흥=주중 기자 gju@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내년 7월 개관 ‘이상무’

공정률 6.7% ...연간 2만4000명 교육 예상 부지내 ‘국가산단 희생자 추모탑’ 건립 추진

지난해 10월 착공한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공사가 6.7%의 공정률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은 현재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며 2023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체험교육장은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600㎡ 규모로 건립되며 3개의 체험관과 가상 안전체험실, 응급 처치실을 비롯해 위험 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을 대비한 62개의 최신 안전체험 콘텐츠로 구성·운영된다.

공사비는 국비투입 246억 원 가운데 지난해 말 잔여 사업비 144억 원을 모두 확보했다.

교육장이 완공되면 관리와 운영인력으로 20여 명이 상주하게 되고, 여수뿐 아니라 전국에서 석유

화학 종사자 연간 약 2만 4000명이 교육 훈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7일 안전보건공단 김경순 동부지사장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최근 여천NCC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여러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향후 이 같은 안전사고로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분석을 통해 사고 유형별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순 지사장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의 특성에 맞는 교육장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조감도. <여수시 제공>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수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해 교육장 부지 내에 ‘산단 희생자 추모탑’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3월 31일까지

광양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2022년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나가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는 주제로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며, 규제혁신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시·도 검토 이후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화영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질문과 답변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민간 정원 발굴 ‘개방정원 등록제’ 추진

내달 7일까지

순천시가 개인·단체·법인이 관리하는 우수 민간 정원을 발굴하기 위해 개방정원 등록제를 추진한다.

등록대상은 개인 30㎡, 기관·단체는 100㎡(건축면적 제외) 이상의 규모의 정원으로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순천시가 운영하는 개방정원 투어와 정원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등록대상 정원으로서 선정되면 등록증과 명패, 소정의 정원관리 재료비를 지원받는다. 등록 신청은 3월 7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정원을 담은 사진을 순천시 정원산업과로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정원 여행’도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겨울 가뭄 대비 농작물 생육관리 중점지도

보성군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계작물 생육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은 1.0mm로 전년보다 43.9mm, 평년보다 34.8mm 적어 맥류 및 마늘·양파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늘·양파는 건조한 표장에 짚, 왕겨 등을 덮어 수분 증발을 억

제하거나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을 공급해야 한다. 보리와 밀은 배수로에 물을 댄 후 즉시 빼주면 된다.

동계작물은 얼었던 땅이 풀리면 바로 웃거름을 주는데 생육상태에 따라 비료양을 조절해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품비료를 직접 살포해 주는 대신 물에 녹여 주면 비료의 손실도 방지하고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